

## 비무장지대 문화·자연유산 올해 첫 실태조사

파이낸셜뉴스 입력 : 2021.02.23 09:09 수정 : 2021.02.23 09:09



백마고지 감시초소(GP) 3차원 입체(3D) 스캔 현장 /사진=문화재청

[파이낸셜뉴스]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비무장지대(DMZ) 문화와 자연유산의 올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, 경기문화재단·강원도문화재연구소와 함께 23일부터 26일까지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(국가등록문화재 제76호) 등 비무장지대 내 근대문화유산 3건을 포함하여 올해 첫 실태조사에 착수한다.

문화재청은 경기도·강원도와 함께 정부혁신(적극행정)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40여개소의 문화·자연유산의 보존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, 2020년에는 파주 대성동마을을 비롯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, 향로봉과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등 11개소에 대해 모두 7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.

2020년에는 파주 대성동마을의 구석기 석제 수습, 화살머리·백마고지 경관조사 등이 이뤄졌다. 이번 조사대상인 파주 장단면 지역은 경의선 장단역을 중심으로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번성하였으나 6·25전쟁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근대도시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다.

이번에는 이들 국가등록문화재 3건에 대한 보존현황조사와 3차원 입체(3D) 스캐닝 등 기록화를 중심으로 인근의 봉수와 보루, 유물산포지 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

같이 이루어진다.

올해 실태조사는 파주 장단면 일대를 시작으로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(국가등록 문화재 제752호)와 건봉산 천연보호구역, 남강 일대지역 등 30여 개소에 대하여 7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.

군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사단과 계획공유를 위한 실태조사 사전회의를 거쳤으며, 국방부·통일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.

문화재청은 1년여 간 추진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·등록 추진, 정밀심화조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제공·활용하고자 한다.

앞으로도 비무장지대의 문화·자연유산이 한반도 중부지역의 역사성과 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yccho@fnnews.com 조용철 기자

※ 저작권자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---